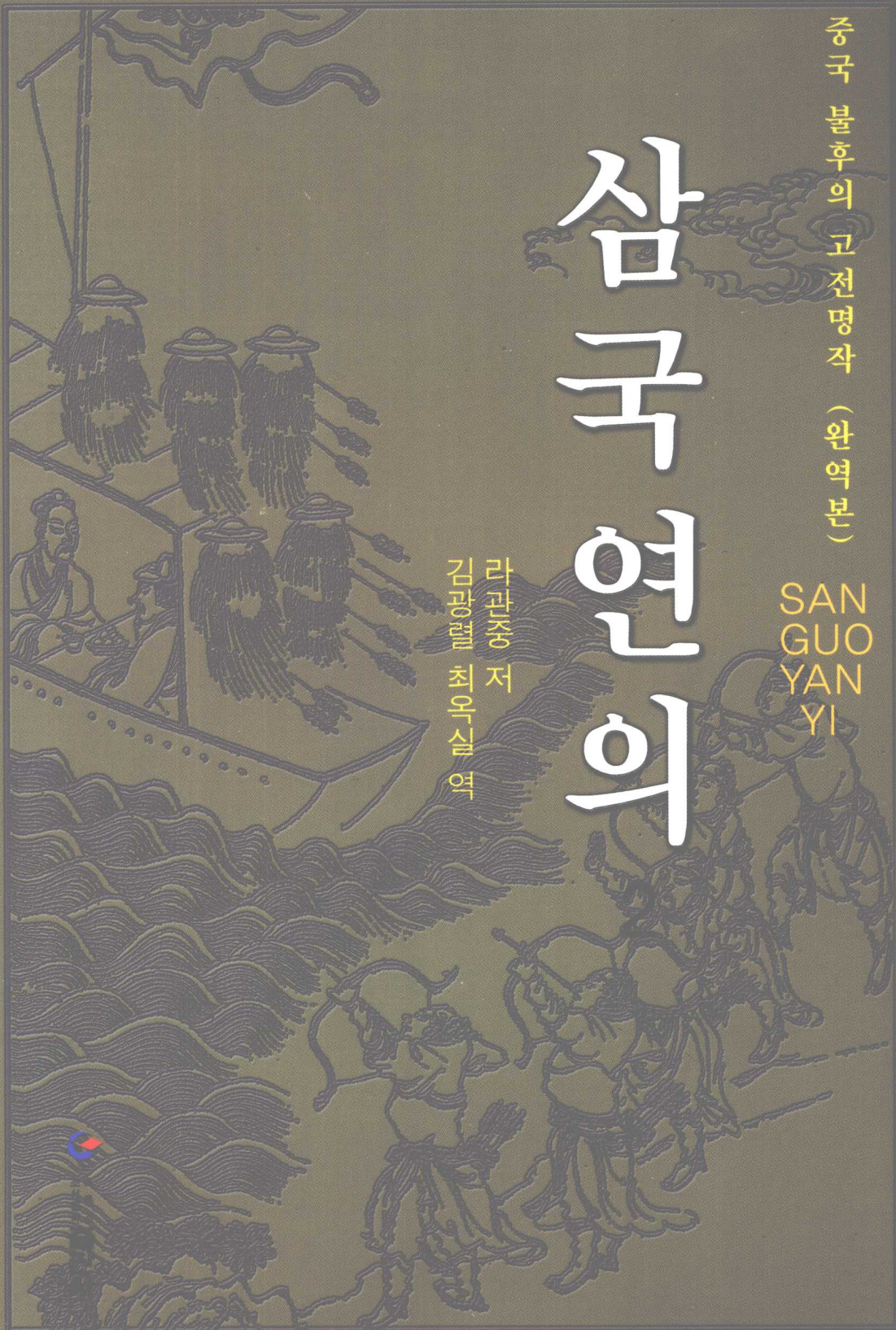


중국 불후의 고전명작 (완역본)

SAN
GUO
YAN
YI

삼국연의

라관중 저
김광렬 최옥실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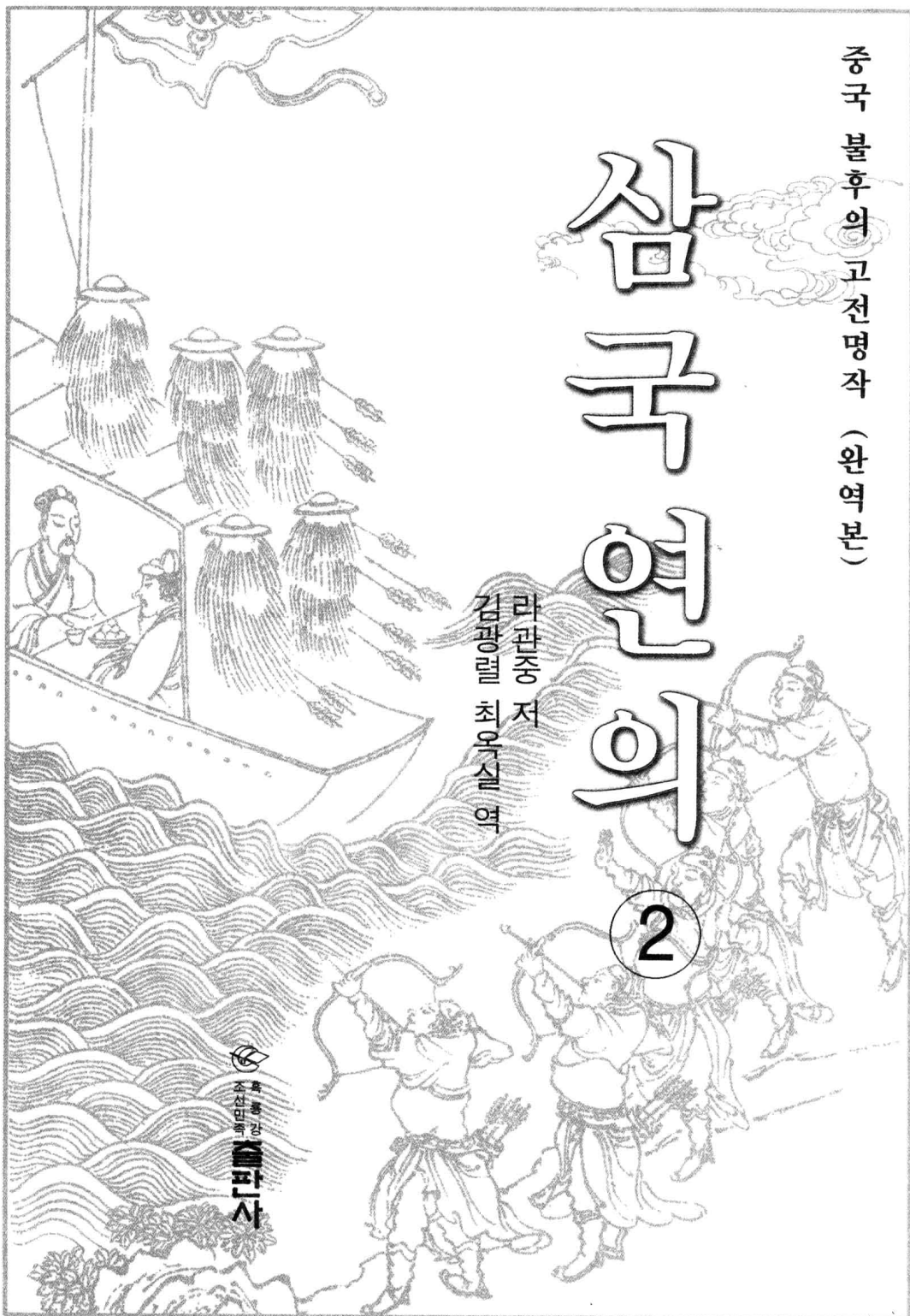
중국 불후의 고전명작 (완역본)

삼국연의

2

라관중 저
김광렬 최옥실 역

북경
중화인민
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三国演义. 2: 朝鲜文 / (明) 罗贯中著; 金光烈, 崔玉实译. — 哈尔滨: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9. 4
ISBN 978-7-5389-1568-6

I. 三… II. ①罗…②金…③崔… III. 章回小说—中国—明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42.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9)第 049202 号

本书根据人民文学出版社 1973 年 12 月
第 3 版翻译出版

차 례

- 제 31 회** 조조는 창정에서 원소를 처부시고
 현덕은 형주에 가서 류표에게 의지하다 /1
- 제 32 회** 원담과 원상이 기주를 가지고 다룰 때
 허유는 조조에게 장하를 틀 계책을 드리다 /15
- 제 33 회** 조비는 란리를 타서 전씨에게 장가들고
 곽가는 계책을 남겨두어 료동을 평정하다 /31
- 제 34 회** 채부인은 병풍뒤에서 밀담을 엿듣고
 류황숙은 말 타고 단계를 뛰어넘다 /47
- 제 35 회** 현덕이 남장에서 은사를 보고 단복이
 신야에서 영명한 주인을 만나다 /62
- 제 36 회** 현덕이 계책을 써서 번성을 엄습하고
 원직이 말을 달려와서 제갈량을 천거하다 /75
- 제 37 회** 사마휘가 다시 명사를 천거하며
 현덕은 세번 초려를 찾다 /88
- 제 38 회** 제갈량은 룡중에서 현덕을 위해 계책을 정하고
 손권은 장강에서 돌아간 아버지의 원수를 갚다 /106
- 제 39 회** 류기는 형주성에서 세번 계책을 세우고
 제갈량은 박망파에서 처음으로 군사를 쓰다 /122
- 제 40 회** 채부인은 형주를 조조에게 바치고
 제갈량은 신야를 불로 사르다 /136
- 제 41 회** 현덕은 백성들을 데리고 강을 건느고
 조운은 홀로 말 타고 주인을 구하다 /151
- 제 42 회** 장비는 장판교에서 크게 호통치고
 현덕은 패해서 한진구로 달아나다 /170

- 제 43회** 제갈량은 허로 강동의 참모들과 싸우고
로숙은 못사람의 공론을 힘써 물리치다 /182
- 제 44회** 제갈량은 슬기롭게 주유를 부추기고
손권은 용단을 내려 조조를 치기로 하다 /199
- 제 45회** 삼강구에서 조조는 군사를 잃고
참모회의에서 장간은 계교에 떨어지다 /216
- 제 46회** 기이한 피를 써서 제갈량은 화살을 빌리고
비밀한 계책을 드러 황개는 형벌을 받다 /233
- 제 47회** 감택은 가만히 거짓 항복서를 드리고
방통은 교묘하게련환계를 쓰다 /251
- 제 48회** 장강에서 연회를 차려 조조는 시를 읊고
배를련쇄하여 북군은 무력을 쓰다 /264
- 제 49회** 칠성단에서 제갈량은 바람을 빌고
삼강구에서 주유는 불을 놓다 /275
- 제 50회** 제갈량은 피도 많아서 화용도로 조조를 꼬여들이고
관우는 의기가 장해서 잡은 조조를 놓아보내다 /291
- 제 51회** 조인은 동오군사와 크게 싸우고
제갈량은 주공군의 기를 한번 돋우다 /304
- 제 52회** 제갈량은 교묘하게 로숙을 물리치고
조운은 계교를 써서 계양을 차지하다 /318
- 제 53회** 관우는 의리로써 황한승을 놓아주고
손중모는 대판으로 장문원과 싸우다 /331
- 제 54회** 오국태는 절에서 신랑의 선을 보고
류비는 화촉동방에 아름다운 연분을 맺다 /345
- 제 55회** 현덕은 피를 써서 손부인을 감동시키고
제갈량은 두번째로 주공군의 화기를 돋우다 /362
- 제 56회** 조조는 동작대에서 크게 연회를 차리고
제갈량은 세번째로 주공군의 화기를 돋우다 /375

- 제 57회** 시상구에서 제갈량은 조상을 하고
 퇴양현에서 봉추는 공사를 보다 /391
- 제 58회** 마초가 군사를 일으켜 원한을 푸니
 조조는 수염을 베고 갑옷을 벗어버리다 /411
- 제 59회** 허저는 별거벗고 마초와 싸우고
 조조는 글씨를 흐려 한수를 리간놓다 /426
- 제 60회** 장영년은 도리어 양수를 힐난하고
 방사원은 론의에 붙여 서촉을 차지하려 하다 /442

제 31 회

조조는 창정에서 원소를 쳐부시고
현덕은 형주에 가서 류표에게 의지하다

이때 조조는 원소를 패주시키고 승세하여 군마를 정돈해가지고 즐기치게 그뒤를 쫓았다. 원소가 홀웃에 복건바람으로 기병 팔백여 명을 데리고 말을 달려 려양북쪽언덕에 이르니 대장 장의거(蒋义渠)가 병영에서 나와 영접한다. 원소가 지난 일을 그에게 호소하자 장의거는 곧 흩어진 무리들을 두루 불러모았다. 군사들이 원소가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는 다시들 개미떼처럼 모여들어서 군세가 다시 회복하였다. 기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길을 떠나오다가 거친 황산에서 밤을 지내는데 원소가 장막에 누워있으려니 멀리서 곡성이 들려온다. 소리나는 곳으로 가만히 찾아가보니 패전한 군사들이 서로 모여앉아 형 잃고 아우 없어지고 동반 버리고 어버이 여원 슬픔을 하소연하며 저마다 주먹으로 가슴을 광광 치고 통곡을 하며 말한다.

“만일 전풍의 말만 들었다면 우리가 이 재난을 겪을 까닭이 어디 있어.”

원소도 마음속으로 (내가 전풍이 하는 말을 듣지 않다가 군사들을 죽이고 장수들을 잃었으니 이제 돌아가면 무슨 면목으로 그를 대할것이라.) 하고 크게 뉘우쳤다.

그 이튿날 원소가 말을 타고 다시 길을 가는데 봉기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그를 맞는다. 원소가 봉기를 보고 말한다.

“내가 전풍의 말을 듣지 않아 이처럼 싸움에 패했으니 이제 돌아가도 그 사람을 볼 날이 없구먼.”

봉기는 곧 전풍을 고발한다.

“전풍이 옥중에서 주공이 싸움에 패하셨단 말을 듣고는 손벽을 치며 ‘과연 내가 생각했던대로다.’ 하고 크게 웃더랍니다.”

원소는 크게 노하여 소리친다.

“씩어빠진 선비놈이 감히 나를 비웃어. 내 이놈을 죽이고말겠다.”

드디어 사자에게 보검을 주어 기주 옥중에 가서 전풍을 죽이라고 분부하였다.

한편 전풍이 옥중에 있느라니까 하루는 옥리가 와서 그를 보고 말한다.

“별가어른께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축하할 일이 있다고 그러나?”

“원장군께서 크게 패하시고 돌아오시니 필연 별가어른을 중하게 쓰실게 아닙니까?”

전풍은 호젓하게 웃고 대답하였다.

“내가 이제는 죽었구나!”

“사람들은 모두 별가어른을 위해서 기뻐들 하던데 어째서 죽는다고 하십니까?”

옥리가 묻는 말에 전풍은 대답하였다.

“원장군이 겉으로는 너그러운체하여도 속으로는 남을 미워해서 충성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 만일 이기기나 했다면 마음에 좋아서 내게 용서를 하겠지만 이제 싸움에 패했다니 나를 볼 낮이 없어 할게라 나는 살기를 바랄수가 없게 되었네!”

그래도 옥리는 믿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자가 검을 들고와서 원소의 명령을 전하며 전풍의 머리를 취하려고 하자 옥리는 놀랐다.

“나는 벌써 내가 꼭 죽을줄을 알고있었네!”

전풍의 말에 옥리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전풍은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그 주인을 모르고 섬기다니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오늘 내 죽는다고 무엇이 아까울게 있단 말이냐!” 하고 마침내 옥중에서 제 목을 찔러 죽었다.

후세사람이 지은 시가 있다.

저수가 어제 아침 군중에서 죽더니만
오늘은 전풍이 옥중에서 죽는구나

하북의 기둥들이 모두다 부러지니
본초가 제 무슨 수로 나라 보전하여보라.

전풍이 이미 죽자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를 위해서 탄식하며 애석해하였다.

원소는 기주로 돌아온 뒤 심사가 산란해서 정사도 다스리지 못하는 형편이었는데 그의 안해 류씨는 그에게 빨리 후계자를 정하라고 권한다. 본래 원소가 세 아들을 두었으니 맏아들 원담(袁譚)의 자는 현사(顯思)라 나가서 청주를 지키고있고 둘째아들 원희(袁熙)의 자는 현혁(顯奕)이라 나가서 유주를 지키고있는데 막내아들 원상(袁尚)의 자는 현보(顯甫)로서 원소의 후처 류씨의 소생이니 얼굴이 영특하게 생겨서 원소가 류달리 사랑하는 까닭에 곁에다 두고 지내오는터였다. 관도싸움에 패한 뒤로 류씨가 원상을 후계자로 정하라고 졸라서 원소는 마침내 심배, 봉기, 신평, 광도 등 네 사람과 이 일을 의논하게 되었는데 원래 심배, 봉기 두 사람은 원상을 돕고 신평, 광도 두 사람은 원담을 도와서 네 사람이 각각 저의 주인을 위해 도모하는터이었다. 이때 원소가 네 사람을 보고 묻는다.

“지금 바깥근심이 끊이지 않으니 안의 일을 불가불 빨리 정해야겠기에 후계자 세울 일을 의논하자는것인데 장자 담은 위인이 성품이 강해서 죽이기를 좋아하고 차자 희는 위인이 나약해서 되기 어렵고 삼자 상은 영웅의 상이 있는데다 어진이를 레로써 대하고 선비들을 공경하는터이라 내가 그를 후계자로 세울가 하거니와 공들의 의향은 어떠한지?”

광도가 있다가 말한다.

“삼형제분중에서 담이 만이시오, 또한 지금 밖에 계신터에 주공께서 만약 만이를 버리고 막내를 후계자로 세우신다면 이는 란리가 일어날 근원을 만들어놓으시는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사의 위엄이 저으기 꺾이고 적병은 지경밖에 와있는데 어찌 부자형제간에 다시 서로 다투게 하실 법이 있겠습니까? 주공께서는 우선 적을 막을 계책을 정하시도록 하고 후계자 세우는 일은 여러 말씀 마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삼국연의

원소는 마음에 주저하여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그러자 문득 보고가 들어오되 원희는 군사 육만을 거느리고 유주에서 오고 월담은 군사 오만을 거느리고 청주에서 오고 외조카 되는 고간(高干)이 또한 군사 오만을 거느리고 병주로부터 오는데 다들 기주로 와서 싸움을 돕겠다는 것이다. 원소는 마음에 기뻐서 다시 군사를 정돈하여 조조와 싸우러 나갔다.

이때 조조는 승전한 군사를 거느리고 황하가로 나가 진을 쳤는데 그 지방 사람들이 음식들을 차려가지고 나와서 그를 맞았다. 조조는 그들가운데 로인 사오명이 수염과 머리가 모두 하얗게 센것을 보고 마침내 장막안으로 불러들여서 자리를 준 다음에 묻는다.

“로인장들은 년세가 얼마나 되셨소?”

“다들 거의 백살이 되였습니다.”

“내 군사가 그대들 고장을 소란하게 해서 내 마음이 심히 불안하오.”

“환제시절에 황성(黃星)이 초(楚), 송(宋)지경에 나타난 일이 있었소이다. 그때 룡동(辽东)사람에 은규(殷墟)라고 천문에 밝은이가 있었는데 밤에 여기 와서 자며 이 사람들을 보고서 ‘황성이 하늘에 나타나 바로 이곳을 비치니 이제 오십년후에 반드시 진인(真人)¹⁾이 량(梁), 패(沛)사이에서 일어날것이요.’ 하더니 이제 해수를 헤아려 보매 예누리 없는 오십년이올시다. 원본초는 백성들에게서 뜯어가는것이 많아서 모두들 원망을 해오는터인데 송상께서는 인의의 군사를 일으키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무도한이를 치시되(吊民伐罪)²⁾ 관도 한번 싸움에 원소의 백만대병을 깨뜨려버리셨으니 바로 전날에 은규가 하던 말과 맞아떨어져 만백성이 이제야 태평을 누리게 되었나봅니다.”

조조는 웃으며 말한다.

“로인장 말씀이 어찌 내게 과분하오.”

드디어 주식과 피복을 로인들에게 주어서 돌려보낸 다음에 삼군에 호령하여 만일 촌에 내려가서 인가의 닭이나 개를 잡는자가

1) 진인: 여기서는 “진명천자(真命天子)”를 가리킨다. 봉건통치배들이 자기를 신화(神化)하여 백성들 기편하는 수법이다.

2) 백성을 위하여 무도한이를 치다: 출처는 《맹자·등문공하(孟子·滕文公下)》이다. 죄악이 많은 군주를 치고 백성들을 위무한다는 뜻으로 봉건통치자들이 정권을 탈취하는 구실로 사용되는 말이다.

있다면 살인한 죄와 똑같이 다스리리라고 하니 군사나 백성이 모두 두려워서 복종한다. 조조는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은근히 기뻐하였다. 그러자 사람이 보하되 원소가 네고을의 군사 이삼십만을 모아가지고 창정(倉亭)에 이르러 진을 쳤다고 한다. 조조는 군사를 거느리고 앞으로 나가서 병영을 세웠다. 이튿날 량군이 서로 대하여 각기 진세를 벌리고나자 조조가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진에 나서니 원소가 또한 세 아들과 외조카며 문관 무장들을 이끌고 진앞에 나섰다. 조조가 꾸짖는다.

“본초는 인젠 맞설 힘이 없으면서 어째서 아직도 항복할 생각을 안하는가? 칼이 바로 목에 들어가는 날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겠는데!”

원소는 대로해서 수하장수들을 돌아보며 웨쳤다.

“뉘 감히 나가서 싸울고!”

원상이 아비앞에서 저의 능한것을 한번 보이려고 곧 말에 뛰어 올라 쌍도를 춤추며 진을 나서자 말을 달려 왕래하였다. 조조가 손으로 그를 가리키며 장수들에게 묻는다.

“저게 누군고?”

아는자가 있다가 아뢴다.

“저것이 원소의 셋째아들 원상이랍니다.”

말이 미처 끝나기전에 한 장수가 창을 꼬나잡고 내달았다. 조조가 보니 곧 서황의 부장 사환이다. 두 장수는 곧 어울려져 싸웠다. 그러나 삼합이 못되어 원상은 홀지에 말머리를 돌려서 달아났다. 사환이 그의 뒤를 쫓는데 원상은 활에다 살을 먹여들자 핵 몸을 돌리며 힘껏 쏘았다. 화살이 바로 좌편눈에 가 들어맞자 사환은 말에서 떨어져 죽어버렸다. 아들이 이긴것을 보고 원소가 채찍을 들어서 한번 가리키니 대대군마가 일시에 와 몰려나가서 혼전이 벌어졌다. 량군은 한바탕 크게 싸우고나자 각기 징을 쳐서 군사를 거두어 병영으로 돌아갔다. 조조가 장수들과 원소를 칠 계책을 의논하니 정육이 있다가 “십면매복지계(十面埋伏之計)”를 드린다.

“군사를 황하가로 몰려서 십대로 나누어 매복해놓은 뒤에 원소를 유인해서 강가까지 따라오게 하는것이니 우리 군사들이 몰려가려도 몰려갈 길이 없고보면 반드시 죽기로써 싸워서 원소를 이기고말것입니다.”

조조가 그 계책을 그리이 여겨서 좌군, 우군을 각각 오대로 나누니 좌군의 일대는 하후돈이요, 이대는 장료요, 삼대는 리전이요, 사대는 악진이요, 오대는 하후연이요. 우군의 일대는 조홍이요, 이대는 장합이요, 삼대는 서황이요, 사대는 우금이요, 오대는 고람이요, 중군은 허저로 선봉을 삼았다.

그 이튿날 십대 군마가 먼저 나가서 좌우에 모조리 매복하고나자 밤중에 이르러 조조는 허저를 시켜서 군사를 거느리고 앞으로 나아가 짐짓 병영 치는 형세를 보이게 하였다. 이를 보고 원소의 다섯 병영의 군마가 일제히 다 일어났다. 허저는 곧 군사를 돌려서 달아났다. 원소가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오는데 함성이 끊이지 않는다. 날이 밝을무렵에 강가까지 다달으니 조조군사가 이제는 더 갈 곳이 없다. 이때 조조는 큰소리로 불렀다.

“앞에는 더 갈 길이 없는데 모든 군사들은 어찌하여 한번 죽기로써 싸우지 않는고!”

모든 군사들은 몸을 돌쳐서며 힘을 뽐내서 앞으로 향하였다. 허저가 나는듯이 말을 달려 앞을 서서 힘을 다해 장수 십여명을 런달아 칼로 베니 원소의 군사는 대혼란에 빠지고말았다. 원소가 퇴군령을 놓아서 급히 군사를 물리자 등뒤에서 조조의 군사가 쫓아온다. 한창 달아나는중에 북소리가 한번 크게 울리며 좌편의 하후연, 우편의 고람이 군사를 몰아나온다. 원소는 세 아들, 조카를 모아 함께 죽기로써 혈로를 뚫고 달아났다. 그러나 다시 십리를 못 가서 좌편에서 악진과 우편에서 우금이 짓쳐나와서 원소의 군사를 어지러이 들이치니 쓰러진 시체는 들을 덮고 흐르는 피는 내를 이루었다. 다시 가기 사오리도 못되여서다. 좌편의 리전, 우편의 서황 량군이 길을 막고 한바탕 몰아친다. 원소부자는 혼비백산해서 가까스로 도망하여 병영으로 들어가자 삼군에 령을 내려서 밥들을 짓게 하였다. 그러나 막 밥들을 먹으려 할 때 좌편으로부터 장료가 뛰어나오고 우편으로부터 장합이 뛰어나와 병영을 엄습한다. 원소가 황망히 말에 뛰여올라 창정으로 달아나는데 사람과 말이 모두 지칠대로 지쳐서 잠시 쉬여 숨을 돌리려 하였으나 뒤에서 조조의 대군이 닥쳐들어서 원소는 목숨을 내여놓고 달아났다. 한창 달아나는중에 우편에서 조홍, 좌편에서 하후돈이 또 나서서 길을 가로막는다. 원소는 큰소리로 웨친다.

“만약 죽기를 결단하고 싸우지 않는다면 반드시 사로잡히고말 것이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좌충우돌하여 겹겹으로 둘러 포위를 간신히 벗어났으나 원희와 고간이 모두 화살에 맞아서 상처를 입었고 군사들은 다 죽고 거의 남지 않았다. 원소는 세 아들을 붙잡고서 한바탕 통곡을 하더니 그만 저도 모를결에 기절하여 땅에 쓰러져버렸다. 여러 사람이 급히 구원해서 깨어나자 원소는 입으로 선지피를 끊임없이 토하고 깊이 한숨 쉬며 “내 그간 수십차를 싸워왔어도 오늘날 이렇게까지 랑패를 보리라고는 생각밖이다. 이는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시는것이라 너희들은 각각 자기 고을로 돌아가서 맹세코 조조도적놈과 한번 결판을 내도록 하여라.” 하고 즉시 신평과 곽도더러 조조가 혹시 지경을 범할가 두려우니 속속히 원담을 따라 청주로 가서 군사를 정돈하라 이르고 원희는 유주로 돌아가고 고간은 병주로 도로 가서 각기 군마를 수습하여 준비를 갖추라고 이른 다음 원소는 원상의 무리를 데리고 기주로 들어가서 병을 조리하면서 원상을 시켜서 심배, 봉기와 함께 잠시 군사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한편 조조는 창정에서 크게 이기자 삼군에 상을 후하게 내리고 사람을 시켜서 기주의 허실을 알아보게 하였는데 정탐이 돌아와서 보한다.

“원소는 병으로 자리에 누워있고 원상과 심배는 성을 굳게 지키고있으며 원담, 원희, 고간은 모두 저희 고을로 돌아갔소이다.”

여러 사람이 모두들 조조더러 급히 치도록 하라고 권하였으나 조조가 “기주는 량식이 극히 많고 심배가 또한 피가 있으니 졸연히 함몰할수 없을뿐더러 지금 바로 농사철에 백성들의 생업을 폐하게 될것이 걱정이니 아직 두었다가 추수나 끝난 뒤에 취하더라도 늦을것은 없으리다.” 하여 바야흐로 의논들을 하고있는중에 문득 순욱에게서 글월을 올린다.

“류비가 여남에서 류벽, 공도의 수만병을 얻어가졌는데 승상께서 군사를 거느리시고 하북으로 출정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마침내 류벽으로 하여금 여남을 지키게 한 다음 류비가 친히 군사를 이끌고 허한 틈을 타서 허창을 치러 오니 승상께서는 속히 회군하시여 이를 막도록 하옵소서.”

조조는 소스라쳐 놀라 조홍을 남겨두어 황하가에 군사를 둔치고 앉아 허장성세하게 하고 자기는 몸소 대군을 거느리고 여남으로 가서 류비를 맞기로 하였다.

이때 현덕은 관우, 장비, 조운 등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허도를 엄습하러 떠났는데 양산(穰山)땅가까이 이르러 바로 조조의 군사들이 짓쳐오는것과 서로 만나서 현덕은 곧 양산아래 진을 치고 군사를 삼대로 나누어 운장으로는 군사를 동남각에 둔치게 하고 장비로는 군사를 서남각에 둔치게 하며 현덕 자기는 조운과 함께 정남방에다 병영을 세웠다. 조조의 군사가 이르자 현덕이 북 치고 고함 지르며 나가니 조조가 진세를 벌리고나서 현덕더러 이를 말 있으니 나오라고 부른다. 현덕이 말 타고 문기아래로 나가니 조조는 채찍을 들어 그를 가리키며 꾸짖는다.

“내가 너를 대접해서 상객을 삼아주었는데 네 어찌하여 배은망덕하느냐!”

현덕은 이에 대꾸한다.

“너는 이름이 한나라 승상이지 실은 국적이라. 내가 한실종친으로서 천자의 비밀조서를 받들어 역적을 치러 온 길이다!”

뒤이어 말우에서 의대조를 랑송하였다. 조조가 대로하여 허저를 시켜서 싸우게 하니 현덕의 배후에서 조운이 창을 꼬나잡고 말을 몰아나갔다. 두 장수가 서로 어울려져 싸워서 삼십합에 이르도록 승부를 나누지 못할 때 갑자기 함성이 크게 진동하더니 동남각에서 운장이 짓쳐나오고 서남각에서 장비가 군사를 거느리고 풍우같이 몰려나와 삼면에서 일제히 들이친다. 조조의 군사는 멀리서 와서 지친터이라 대적할 도리가 없어서 크게 패하여 달아났다. 현덕은 승전하고 병영으로 돌아왔다.

이튿날이다. 현덕은 또 조운을 시켜서 싸움을 돋우게 하여보았다. 그러나 조조의 군사는 역시 열흘이 되도록 나오지 않았다. 현덕은 다시 장비를 시켜서 싸움을 청하였는데 조조의 군대는 역시 나오지 않았다. 현덕의 마음이 더욱 의아해할 때 난데없이 보고가 들어오는데 공도가 군량을 운반해오다가 조조의 군사에게 포위를 당하였다고 한다. 현덕은 급히 장비를 시켜서 구하러 가게 하였는데 갑자기 또 보고가 들어오되 하후돈이 군사를 거느리고 배후로 돌아서 곧장 여남을 취하러 갔다고 하는것이다. 현덕은 깜짝 놀라 “만

약 그렇다면 나는 앞뒤로 적을 받아 돌아갈데가 없지 않느냐!” 하고 급히 운장을 보내서 구하게 하였는데 랑군이 모두 떠난지 하루가 못되어 정찰이 나는듯이 달려들어서 보하는 말이 하후돈이 이미 여남을 쳐 깨뜨려서 류벽은 성을 버리고 달아났으며 운장은 지금 적의 포위속에 들어있다고 한다. 현덕이 크게 놀라는데 또 보고가 들어왔다. 장비가 공도를 구하러 갔다가 그도 포위를 당하고말았다는것이다. 현덕은 급히 회군하고싶으나 또한 조조의 군사가 뒤를 엄습할까 두려워 못하고있을 때 문득 보하되 병영밖에 허저가 와서 싸움을 돈우고있다고 한다. 현덕은 감히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날이 어둡기를 기다려서 군사들을 배불리 먹인 다음에 보군을 먼저 보내고 마군이 뒤를 따라 떠나는데 병영안에는 경점군(更点军)¹⁾만 남겨두어 시각을 보하게 하였다. 현덕의 무리가 병영을 떠나 사오리나 갔을가 해서 토산을 지나가는데 화불이 낮같이 밝으며 산머리에서 큰소리로 부른다.

“현덕은 도망하러 말아. 승상께서 일부러 여기서 기다리고계신다!”

현덕이 황망히 도망할 길을 찾을 때 조운이 “주공은 근심 마시고 제 뒤만 따라오십시오!” 하고 창을 꼬나잡고 말을 몰아서 길을 뚫고 나갔다. 현덕은 쌍고검을 들고 그뒤를 따랐다. 한창 싸우며 나가는중에 허저가 뒤미처 쫓아와서 조운과 힘껏 싸우는데 배후에 우금과 리전이 또 달려들었다. 현덕은 형세가 위태로운것을 보고 당황망조해서 말을 놓아 달아났다. 등뒤에 함성이 점점 멀어진다. 현덕이 산속의 외딴 길을 바라고 혼자 도망해가는데 차차로 날이 밝아올무렵에 옆으로부터 한떼 군사가 뛰어나왔다. 현덕이 깜짝 놀라 바라보니 곧 류벽이 패잔한 군사 천여명을 거느리고 현덕의 가족을 호송해가지고 온것이였다. 뒤미처 손건, 간웅, 미방이 또한 이르렀다. 그들은 모두 말하였다.

“하후돈의 군세가 심히 날카로와 성을 버리고 도망한것인데 조조의 군사가 쫓아오는것을 다행히 운장이 막아주어서 벗어날수가 있었습니다.”

현덕이 묻는다.

1) 경점군: 하루를 오점으로 나누고 일경을 오점으로 나눈다. 경에는 북을 치고 점에는 징을 쳐서 시각을 알리는데 그 소임을 맡은 군사를 경점군이라 한다.

“그래 운장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오?”

류벽이 말한다.

“장군은 우선 길이나 가시고 그것은 다시 알아보기로 하세요.”

그러자 몇리를 못 가서 북소리가 쿵하고 울리더니 앞에서 한때 군마가 몰려나오는데 앞을 선 대장은 장합이다.

“류벽은 빨리 말에서 내려 항복을 드려라!”

현덕이 막 뒤로 물러나려 할 때 산마루에 흥기가 움직이더니 산 골안으로부터 또 한때 군사가 나오는데 거느리는 대장은 곧 고람이다. 현덕이 앞뒤로 다 길이 끊겨서 마침내 하늘을 우리러 큰소리로 “하늘은 어이하여 나로 하여금 이런 곤경을 치르게 하시는가! 사세가 이에 이르렀으니 죽을수 밖에는 도리가 없다!”고 부르짖으며 칼을 빼여 스스로 목을 찌르려 하니 류벽이 급히 “내가 죽기로 싸워 길을 앗아 사군을 구하오리다.” 하면서 나가 고람과 싸웠다. 그러나 삼합이 못되어 그는 고람의 칼을 맞고 말아래 거꾸로 떨어졌다. 현덕이 급해맞아 바야흐로 몸소 나서서 싸우려 할 때 고람의 후군이 갑자기 제풀에 어지러워지며 한 장수가 적군속을 뚫고나오더니 창끝이 번쩍하더니 고람이 뒤재주를 쳐서 말아래 떨어진다. 보니 바로 조운이다. 현덕은 크게 기뻐하였다. 조운은 말을 놓아 창을 꼬나 잡고 후군을 물리친 뒤에 다시 전군쪽으로 달려들어 혼자서 장합과 싸웠다. 장합은 조운과 삼십여합을 싸우다가 패해서 말을 돌려 달아났다. 조운이 승세해서 그대로 몰아치는데 장합의 군사가 골어구를 딱 막고있어서 길이 좁아 빠져나갈수가 없다. 한창 길을 트려고 싸우는중에 문득 운장, 관평, 주창이 삼백군을 거느리고 당도하여 앞뒤로 서로 쳐서 장합을 물리치고 각기 액구(隘口)를 빠져나가 험한 곳을 가려서 병영을 세운 다음 현덕은 운장을 시켜서 장비를 찾아보게 하였다.

원래 장비가 공도를 구하러 가보니 공도는 이미 하후연의 손에 죽은 뒤라 장비가 힘을 다해서 하후연을 물리치고 다시 그뒤를 쫓아가던중에 악진이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왔으므로 장비는 도리어 포위를 당하고말았던것이다. 운장은 길에서 패군을 만나 그의 종적을 알고 찾아가서 악진을 물리치고 장비와 함께 돌아와서 현덕을 보았다. 그러자 조조의 대대군마가 뒤를 쫓는다는 보고가 있어서

현덕은 손건의 무리더러 가족을 보호해서 먼저 가라 이르고 관우, 장비, 조운과 뒤에 처져서 일변 싸우며 일변 달아났다. 조조는 현덕이 멀리 가버린것을 보자 군사를 거두고 더 쫓지 않았다.

현덕의 패군이 천명에도 차지 못하였다. 그들은 갈팡질팡 도망을 해서 어느 강가에 다달아 그곳 사람을 불러 물어보니 한강(漢江)이라고 한다. 현덕은 그곳에다 임시로 병영을 세웠다. 그 고장 사람들이 그가 바로 현덕임을 알자 술과 고기를 갖다가 바쳐서 모두들 강가 모래톱에 가 앉아서 술들을 마시는데 현덕이 문득 한숨을 지으며 말한다.

“제군이 모두들 왕좌지재(王佐之才)를 가지고있으면서 다만 류비를 따르기가 불행이라 내 운수 군색해서 이런 루(累)가 제군에게까지 미쳤소그려. 오늘날 송곳을 쫓을만한 땅조차 없으니 참으로 제군의 앞길을 그르칠가 두려웁소. 제군은 왜 류비를 버리고 영명한 주인을 찾아가서 공명을 취하려 아니하오?”

모든 사람이 다 낮을 가리고 운다. 운장이 있다가 위로한다.

“형님 말씀이 옳지 않습니다. 옛적에 고조께서 항우와 천하를 다투실 때 여러차례 항우에게 패하셨으나 뒤에 구리산(九里山) 한번 싸움에 공을 이루시여 사백년기업을 열어놓으셨던것입니다. 승패는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인데 걱정하셔서 될 일입니까!”

손건이 나서며 말한다.

“성패에는 때가 있는것이니 뜻을 상하셔서서는 안됩니다. 이곳이 형주와 상거가 멀지 않은데 류경승이 앉아서 아홉군을 거느리며 군사가 정예하고 양식이 풍족할뿐더러 또한 주공과 더불어 같은 한실종친인데 주공께서는 왜 가서 의지해보려 안하십니까?”

현덕이 말한다.

“다만 용납해주지 않을것이 넘려될뿐이요.”

손건이 말한다.

“제가 먼저 찾아가 경승을 잘 달래서 그로 하여금 지경밖에 나와 주공을 모셔들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덕은 크게 기뻐하여 즉시 손건을 시켜서 밤을 타서 형주로 가게 하였다. 손건이 형주에 이르러 류표를 들어가보니 인사가 끝나자 류표가 한마디 묻는다.

“공이 현덕을 따르더니 어찌하여 이곳에 오셨소?”